

# 곡성형 지역교육 5년...아이들 ‘각자의 빛깔로’ 성장

郡미래교육재단, 교과 연계 마을교육  
숲·생태·예술·목공·역사 등 10개 분야  
초등 8개교 4천여명 참여 만족도 ‘쑥’

학령인구 감소라는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 곡성군이 공들여 다져온 ‘곡성형 지역교육’이 아이들의 성장판을 자극하며 새로운 교육 모델로 자리 잡았다.

11일 곡성군미래교육재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곡성형 지역교육’을 운영해 오고 있다.

해당 교육은 지역의 마을 교육 공동체와 긴밀히 협력해 아이들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하고 지역 속에서 다양한 배움을 경험하며 ‘자신만의 빛깔’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방점을 뒀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도입 5년 차를 맞은 ‘초등 교과연계 마을교육과정’으로 단순한 교육을

넘어 지역 경제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학교와 마을, 재단이 상생하는 선순환 모델을 구축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에게서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 지역 교육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운영된 마을교육과정은 ▲숲 ▲생태 ▲예술 ▲목공 ▲역사 등 10개 분야에 걸쳐 다채롭게 진행됐는데, 관내 8개 초등학교에서 연간 4천723명의 학생이 참여했고 총 286회의 수업이 마을 곳곳에서 이뤄졌다.

곡성의 마을교육과정은 단순한 현장 체험 학습이나 견학과는 다르게 학교의 정규 교과 과정 학습 목표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으로, 교과서 내용을 곡성의 역사, 문화, 자연 자원을 활용해 재구성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초등학교 3학년 사회 교과와 ‘지역의 지리 및 문화’ 단원은 곡성을 내 유적지와 지형

을 직접 탐방하는 수업으로 대체되며, 4학년 과학 교과와 ‘생태계’ 단원은 섬진강 주변 생태 습지를 탐사하고 숲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교육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학교 교사와 지역 전문 인력인 ‘마을교육감사’가 협력 수업(Co-teaching)을 진행함으로써 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아이들은 책 속의 개념을 마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만지며 익히는 ‘프로젝트형 수업’을 통해 지식을 삶의 지혜로 확장한다.

이같은 교육 방식은 학생들에게 단순한 지식 습득 이상의 가치를 선물하며,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착심(정주 의지)을 자연



지난 5월 ‘곡성형 지역교육’ 중 학교 밖 마을교육의 일環으로 진행된 섬진강 생태습지에서 아이들이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곡성군 제공>

스럽게 키우는 것은 물론, 마을 어른들과 소통하며 사회성과 협업 능력을 기르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곡성군미래교육재단 관계자는 “곡성형 지역교육은 교실 안에서 채우기 힘든 핵심 역량을 마을이라는 배움터에서 채워주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튼튼한 지역 정체성을 바탕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재와 미래를 잇는’ 교육 과정을 든든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곡성=김영필 기자

## “달콤한 품미 자랑하는 고흥 굴 맛 보세요”

郡, 내년 1월3일 겨울 첫 미식 축제  
해장만 오토캠핑장서...주문 택배도  
한상 차림·포차·쿠강클래스 등 다채

고흥군이 겨울철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굴 축제’를 처음으로 선보인다.

11일 고흥군에 따르면 내년 1월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포두면 해장만 오토캠핑장 일원에서 ‘2026 제1회 해장만 고흥 굴 축제’를 개최한다.

‘바다의 시간, 고흥의 맛’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취도·금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얇은 수심과 펄, 모래가 섞인 해장만 특유의 환경에서 자라 육질이 단단하고 달콤한 품미를 자랑하는 고흥 굴의 진가를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장만은 영양 순환이 활발해 겨울철이면 굴



의 밀도와 감칠맛이 절정에 이르는 것으로 유명하며, 축제장은 남녀노소 누구나 제철 굴을 즐길 수 있도록 미식과 체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핵심 공간인 미식존 ‘바다마루’에서는 고흥의 독특한 향토 음식인 ‘파굴’을 필두로 굴을 활용한 보쌈, 국밥, 전, 라면 등 10여종의 요리 한상 차림을 만날 수 있다.

스페셜존 ‘굴막포차’에서는 쌀쌀한 겨울 날씨를 녹여줄 따끈한 굴구이와 굴찜이 즉석에서 조리돼 제공된다.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즐길 거리도 풍성하다. 체험존 ‘바다놀이터’에서는 어린이 쿠강클래스, 소원 굴질이 체험, 해물 바람개비 만들기 등이 진행되며, 굴 마스크트 ‘꾸울이’와 함께하는 스텝프 미션 이벤트도 열린다.

주무대에서는 셰프의 요리 시연과 굴 까기 대회, 바다 노을을 배경으로 한 공연 등이 펼쳐져 축제의 흥을 돋울 예정이다.

이밖에도 마켓존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질 좋은 석화과 각종 수산물, 로컬푸드를 현장에서 구매하거나 택배로 주문할 수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해장만 굴은 천혜의 자연 환경과 어민들의 정성이 빚어낸 겨울 최고의 보양식”이라며 “이번 첫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고흥 굴의 가치를 전국에 알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겨울 미식 축제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 여수경찰, 어르신 야간 교통사고 예방 강화

농기계·실버카 반사지 부착

여수경찰서는 “최근 겨울철을 맞아 어르신들의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와 보행보조용 의자차(일명 실버카) 운행이 잦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고회도 반사지 부착’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반사지 부착은 최근 경운기나 트랙터 등 농기계와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보행보조차 관련 야간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해당 장비는 구조 특성상 후미등이 없거나 어두워 야간 식별이 매우 어렵다.

이에 경찰은 관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을 직접 방문해 농기계와 보행보조차에 빛 반사 성능

이 뛰어난 고회도 반사지를 부착하고 있으며, 고장 난 등화 장치를 점검하고 야간 보행 안전 수칙을 교육하는 등 현장 밀착형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규석 경찰서장은 “어르신들의 교통사고는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예방이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고령자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시인성 확보 등 실질적인 안전 활동을 강화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장흥군은 지난 1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관내 초등학교 11명의 어린이가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제7대 장흥군어린이의회 본회의’를 개최했다. <장흥군 제공>

## 장흥군 ‘제7대 어린이의회 본회의’ 성료

장흥군은 11일 “전남 의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 제7대 장흥군어린이의회 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는 장흥군내 초등학교 총 11명의 어린이가 의원이 참여했으며,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자유발언과 안전 상정·심의를 진행했다.

본회의는 장흥군의회 의장의 환영 인사를 시

작으로 기념 단체사진 촬영 후 개회선포, 국민 의례, 개회사, 보고사항, 자유발언, 안전 상정·심의, 폐회선언 순으로 이어졌으며 어린이의원들이 의장과 부의장을 맡았다.

자유발언과 안전 심의과정에서는 ▲어린이 안전 ▲학교 주변 환경 ▲놀이 공간 확대 등 어린이의 시각에서 생활 속 문제와 개선 의견이 활발히 제시돼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군은 어린이의회를 통해 아동이 정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본회의에서 제안된 의견들은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향후 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어린이의회는 아동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아동참여기구로 대표적인 아동친화도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어린이의 목소리가 군정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흥=노형록 기자

## 담양군, 참전·5·18 유공자 예우 ‘확’ 달라진다

내년부터 수당 ↑·배우자 수당도

5·18 민주유공자 월 4만원 추가

담양군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지원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

11일 담양군에 따르면 2028년부터 참전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거나 신설해 지급한다.

우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기존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 시 수당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던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월 5만원)’을 전격 신설했다.

배우자 수당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담양군 보훈명예수당과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신청은 참전유공자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이와 함께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두터워진다.

군은 전남도에서 지급하는 기존 수당(월 6만원)과 별도로, 군비로 월 4만원의 ‘5·18 민주명예수당’을 신설해 내년부터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앞으로 보훈회관이 포함된 세대어울림센터 건립 등 지역 내 보훈 기반을 확충하고 복지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 장성군,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우수 ‘장려상’

기후부 평가 온실가스 감축 등 호평

장성군이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인정받아 정부 표창을 수상했다.

11일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2025년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우수 지자체 선정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장려상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의 208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의 운영 실적을 종합 분석해 이뤄졌다. 주요 평가 항목은 ▲제도 참여자 수 ▲온실가스 감축량 ▲제도 활성화 노력 등이다.

장성군은 이번 평가에서 ▲저탄소·저예산형

홍보 ▲주민 맞춤형 ‘온·오프라인’ 홍보 ▲찾아가는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운영 등 차별화된 참여 유도 전략을 펼쳐 높은 점수를 받았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가정이나 상업 시설 등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하면 실적에 따라 현금이나 포인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로, 누리집이나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탄소중립 실천은 미래 세대를 위한 당면한 의무”라며 “앞으로도 장성군이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 화순군 청년 공작소서 미리 만나는 ‘크리스마스’

내일 청춘신작로 어울림광장서

푸드트럭·버스킹 공연 등 다양

화순군은 11일 “오는 13일 오전 11시부터 화순읍 청춘신작로 어울림광장에서 ‘청년들의 크리스마스 공작소’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청년 공동체와 청년 창업가, 푸드트럭 운영자 등 10개 팀이 의기투합해 마련한 축제의 장으로 공연부터 미식, 각종 체험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열정과 끼를 발산할 예정이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오감을 만족시키는 부스

가 운영된다. 청년 푸드트럭은 메뉴 맛 평가 코너를 통해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체험 부스에서는 ▲크리스마스 도어벨·셔고 방향제 만들기 ▲겨울 정원 테라리움·캘리그래피 체험 ▲신년 운세·파스널 컬러 진단 등 이색적인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감성적인 청년 뮤지션의 버스킹 공연과 함께 따뜻한 뽕소(Vin Chaud) 만들기, 크리스마스 트리 소원 카드 달기 등 연말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콘텐츠가 방문객을 맞이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주말 나들이를 통해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을 응원하고 미리 크리스마스를 즐겨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